

# “내부 혁신으로 사회 요구에 적극 대응, 선한 영향력 전파 위해 최선”

“We actively respond to social needs through internal innovation and do our best to spread a good influence.”

이명진 대표이사 · 건축사  
Lee, Myungjin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첨단설계부문

## Q. 첨단설계부문의 탄생 배경은 무엇인가요?

제작년 말 내부에서 기획이 시작됐고, 저는 TF장으로 임명되어 작년 3월부터 1년간 조직을 구성하는 데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4차 산업의 파장으로 사회, 기술, 경제, 산업 등에서 급격한 변화가 느껴졌고, 이에 맞춰 변화하지 않으면 조직의 생존이 어려울 것임을 내부에서 인식했습니다. 이에 따라 혁신과 도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욕구와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위기의식이 내부 혁신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모빌리티, 데이터 등의 산업 분야는 정림건축이 7~8년 전부터 준비해온 신성장 포트폴리오입니다. 내부 조직의 변화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전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첨단설계부문이 탄생한 것입니다.

## Q. 사업 분야에 대한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른 부문과는 어떻게 협력해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비즈니스마켓 관련 부분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스마트오피스, 모빌리티, 데이터센터 등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첨단설계의 사업적 부분을 말씀드리면, 반도체 같은 경우 7~8년 전부터 프로젝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구체화됐습니다. 기술력뿐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일반 설계를 통해 어떻게 사람 중심으로 건물을 바라보고 환경을 고려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기술력이 이쪽 분야에서 클라이언트와 산업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지니어링 쪽에 가까운 부분에서도 건축적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반 건축, 레거시 분야에도 저희의 기술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토털 건축으로 완성해나갈 수 있는 상호 관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확장을 통해 내실을 다지며 종합건축사사무소로서의 면모를 갖고 가려는 모습이 시장에서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 Q. 첨단설계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앞서 사업 분야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또 하나 워크스타일과 관련해 크게 DT(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GT(그린 트랜스포메이션)로 나눌 수 있습니다. DT는 수많은 분야에서 건축계 시장에 침투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발맞춰 서로 확장해나 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방식이 기존에 머물러 있으면 위기감을 느낍니다. 공정에 앞서 기획 영역에서도 개발자 등의 다른 영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후단의 건설사나 유지관리 부분에도 DT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건축설계 분야에는 변화가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DT를 통합·활용한 우리의 워크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GT는 저희가 만든 용어인데요. 지구 환경 온난화에 대응하는 사회와 클라이언트의 요구들이 현실이 되어 선언적인 대책이 아닌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2050 탄소 중립 등 탄소 배출 관련 문제들이 그렇습니다. 먼 미래 같지만 클라이언트들은 실현을 위한 2030계획을 따로 수립하고 있고, 2030은 우리가 지금 설계하는 건축물에 바로 적용돼야 하는 부분입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목전에 당면한, 이미 늦은 일이라는 거죠. 당장 해야 하는 일하기에 전체 설계 공정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DT와 GT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두 DT, GT 분야가 우리 첨단 설계 분야의 핵심 워크스타일입니다.

## Q. DT와 GT로의 전환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선도적인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있었지만, 저희는 회사로서 철저한 연구를 통해 명분과 목적을 확립하고 기술과의 통합을 시도하며 전반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설계 자동화, 행정 자동화, 소통 강화, 데이터 관리 등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설계 자동화’ 부문에서 정림건축이 지향하는 것은 특정 범용 소스가 아닌, 해당 분야에 전문적으로 맞춤형 자동화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미 20여 가지의 자동 생성 관련 알고리즘을 계획하고, 실제 프로젝트에



(주)정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첨단설계부문 이명진 대표이사는 지혜로운 문제 해결과 경영 리스크 축소를 위해 팀워크와 조직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베타 버전을 시도해 피드백을 받아 계속 발전시키고 있으며, 올해는 내부 프로젝트와의 결합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러 관리 부분에서의 ‘운영 자동화’는 올해부터 시도하고 있습니다. 각종 클라이언트 관련 정보 보안 및 활용, 경영 지표 자동화 등이 그 예입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효율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해 운영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를 사용해 일부 계약서를 검토하는 등 몇 가지 요소들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법적인 측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는 업무 현장에서 리모트 워크를 어떻게 실행할지, 계속해서 분리된 업무 공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지에 대해 회의 문화부터 내부 간 소통, 외부와의 교류, 작업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상용 앱과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특정 부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을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 ‘지식 관리(knowledge management)’ 분야입니다. 정림건축은 오랜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내부에는 오래된 데이터가 많습니다. 이전에는 아카이빙할 때 스캔해 컴퓨터 하드에 저장했지만, 서버 공간만 더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로부터 우리의 지식이 무엇인지 규정하고 카테고리화해 어떻게 활용할지, 어떻게 인식하고 접근해 가치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보안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진행 중입니다.

## Q. 정림건축의 지향점은 무엇인가요?

선한 영향력과 자국을 주길 바라는 게 실질적인 마음입니다. 우리는 거버넌스 지휘체계 등의 집단 지성을 활용해 경영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을 지속적인 경영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수직적인 위계가 없고, 한 명의 독점적인 CEO 체제를 벗어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정림건축은 선대 회장부터 팀워크와 조직 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그러한 가치가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팀워크와 조직적 경영 방식이 구축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협력해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경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인적으로, 정림건축이 안정적이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레거시로만 보이는 것이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20여 년 전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도 정림건축은 매우 도전적인 기업이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디테일집과 캐드를 도입한 사실도 있지만, 기본적인 디자인과 기술에 관한 부분, 안정된 조직 문화와 함께 많은 선배들과 내부의 노하우와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변화를 주도하려는 모습이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박정연 편집국장 · 글 육혜민 기자 · 사진 장영호 기자